1,900m 절벽서 그네 타다가 줄이 '뚝'

▲ 사진=iheartradio.com

1,900m 높이 절벽에서 추락한 러시아 여성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지난 달 '러시아의 그랜드 캐니언' 이라 불리는 술락 협곡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그네에 오른 여성 관광객과, 뒤에서 그네를 밀어주는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다.

여성들은1,900m 절벽 위에 설치된 그네를 타고 협곡의 풍경을 감상하는 짜릿함을 맛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쇠사슬로 된 그넷줄이 끊어지면서, 그네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비명을 지르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란 관광객들은 일제히 사진 촬영을 멈추고 절벽 쪽으로 황급히 달려갔다.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순간이었다.

다행히 추락한 여성들은 경미한 타박상 외에 별다른 부상 없이 멀쩡하게 절벽 위로 끌려 올라왔다. 여성들은 절벽 아래에 설치된 작은 나무 구조물로 떨어지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 관광지를 관할하고 있는 다게스탄 관광청은 "그네가 최대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쇠사슬이 끊어졌으면 생명을 보존하기 힘들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사고 이후 다게스탄 관광청은 문제의 그네는 물론 절벽에 설치된 모든 그네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역 의회는 관광객 안전이 우려된다며 모든 그네의 철수를 요구했다.

술락 협곡은 유럽에서 가장 깊고도 가파른 협곡으로 꼽힌다. 길이는 53㎞, 깊이는 최대 1,920m가 넘는다.

이별 통보 남친에 복수하려고 교통 위반 수십 건

▲ 사진=sohu.com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전 남자친구 명의의 자동차를 빌려 수십 차례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을 한 여성이 적발됐다.

중국 저장성 샤오싱 성저우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로우 씨는 최근 전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았다.

이에 로우 씨는 그에게 보복할 방법으로 전 남자친구 명의의 자동차를 대여, 손해를 입히는 것을 생각하고 평소 자신에게 수 차례 구애했던 현재 남자친구 주 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차를 빌려 2일 동안 고의적으로 50여 건의 교통 법규를 위반하도록 했다. 전 남자친구는 외제차 대여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로우 씨의 복수 행각은 단 이틀 동안 50여 차례의 교통 위반을 한 사건을 수상하게 여긴 관할 공안에 의해 꼬리가 밟히면서 끝이 났다.

공안에 붙잡힌 주 씨는 "사건 직전 로우로부터 전 남자친구에게 보복하는데 도움을 주면 사귀어 줄 것이다는 말을 믿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고 털어놨다.

주 씨는 빌린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 위반 49건, 속도 위반 1건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하지만 다행히 교통 위반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공안국은 밝혔다.

현재 교사범 로우 씨와 사건에 조력한 주 씨는 소란 난동죄 등으로 형사 구류된 상태다.

'텐트생활'하며 공장 운영하는 베트남 한국 기업

▲ 사진=e.vnexpress.net

최근 베트남 호치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베트남 당국이 근로자들이 공장 안에서 숙식하거나, 회사 인근 정해진 숙박 장소에서 출퇴근하는 경우에만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로 인해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전자, LG, 효성 등 한국 제조업체 직원들은 가족과 떨어져 공장 인근 호텔에서 거주하거나, 아예 공장 안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

호치민시 비즈니스 협회에 따르면, 산업 단지 및 제조 구역 내 556개 기업 중 353곳의 근로자들이 당국의 명령에 따라 공장 안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있다. 하루라도 공장 운영이 중단되면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공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최근 현지 공장에서 4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을 별도 시설에 격리하고, 생산 라인은 계속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당국은 호치민시, 롱안, 빈증, 동나이 등 16개 성, 시에 19일부터 최고 방역 수준인 '16호 지시령' 을 14일간 연장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월2일까지 외출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생필품, 의약품 구매 시만 예외적으로 외출을 허용한다.

2인 이상 모임 금지, 대중교통 운행 중단, 음식점 영업은 물론 포장 배달도 금지된다.